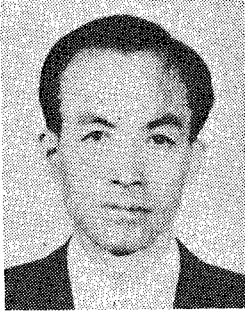


農村計劃分科委員會의 發足を 보고

金 哲 基

(農博·忠北大學校 農科大學 教授)



新任會長 就任後 처음 召集(3月 31日)된 學會理事會 議에서 우리 農工學會에 農村計劃分科委員會를 새로이 設置키로 하여, 그 發足を 보게된 것은 좀 늦은 感은 있으나 무척 多幸스러운 일로서 우리 會員 모두가 歡迎하고 慶賀하여 마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農業과 農村이 새로운 時代를 맞이할 轉換期에 處해 있는 重要的 時期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時間에 맞는 뜻 깊은 發足이라고 하겠다.

나날이 深刻해 가고 있는 農村의 人力難은 耕地의 再整備와 農業의 機械化를 크게 要求하고 있고, 農產物價格의 甚한 不安定은 農產物의 流通構造改善을 바라고 있으며, 都市化 및 工業化에 따르는 食糧圈의 蠶食 및 날로 威脅이 더해지는 農村公害는 좀더 土地의 合理的 利用과 農村의 快適性을 渴望하고 있으며 아직도 非衛生的이고 초라한 農村環境은 生産의인 새로운 形態의 聚落構造改善 및 文化福祉 指向의 聚落構造를 切實히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推進해나가야 할 우리의 農工分野 또한 새로운 方向에서 對處하지 않고서는 農村이 當面한 저와같은 일들을 勘當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農工人이 앞으로 擔當하여야 할 領域은, 이제까지 農業生産基盤事業分野에만 局限시켜 왔던 것과는 달리, 農業機械化의 時代의 要請을 비롯하여 生産에서 流通에 이르는 過程에서의 栽培·飼育, 管理, 收穫, 調製, 貯藏, 加工 등 諸般技術의 發達과, 共同購入, 共同販賣, 共同作業 및 共同利用組織의 組織化에 따르는 施設化가 必要하게 되고, 여기에 農村環境改善 및 聚落構造改善에 따르는 住宅改良, 文化福祉施設, 衛生施設, 農村電化의 必要性 등 一層 넓어져 가는 狀況으로 우리 農工人에게 賦與된 課題와 使命은 참으로 莫重하게 되었다. 또 이 일들은 農村의 生産과 生活의 兩面變化에 따라 變化하여 나가는 것으로, 相互間의 關聯性이 더욱 커져 가고 있어서, 從前과 같이 獨立的 立場에서 計劃推進하고 處理한다면 精力의으로나 經濟的으로 많은 浪費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그 施設의 機能面에 있어서도 有機性的 缺如로 全體의인 均衡維持가 어려워지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現在 進行中에 있는 農業用水開發 및 用排水改良事業, 開墾干拓事業, 耕地整理事業, 農業機械化事業, 農村環境改善 및 聚落構造改善事業등이 當初부터 相互關聯이 없이 獨自的으로 推進되고 있음은 勿論, 事業의 先後가 뒤바뀌는 일이 있어, 既히 애써 이룩한 施設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옮기거나 改築하여야만 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너무 近視眼的이고 斷片的 計劃이 되고 말아서 새로운 施設을 追加하려해

도 할 수 없고, 統合되어야 할 施設이 分散되거나 分散되어야 할 施設이 한데 합치어 그 機能의 有機性喪失은 勿論, 公害까지도 發生하는 등 많은 問題가 일어나고 있다. 特別 그 中에서도 農村環境改善 및 聚落構造改善事業은 事業性質上 農工分野에 屬하는 事業이면서 內務部所管 새마을事業으로 施行하는 關係로, 이제까지 우리 農工人이 參與하여온 農水産部所管的 土地生産基盤整備事業과 完全히 分離되어 關聯이 없는 事業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單純히 住宅改良이란 次元을 별로 벗어나지 못해서 農業經營과는 相關없는 計劃이 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런 點에서 앞으로의 農村開發에 있어서는 農業生産과 農村生活을 連結統合하는 觀點에서 農業用水開發에 對한 것도 農村의 生活用水問題는 勿論, 都市 用水와의 競合問題도 함께 考慮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고 農業機械化問題만 하여도 適正機種의 開發과 普及, 耕地整理狀況, 農機械修理施設, 農機械의 利用組織, 運轉要員의 確保등 農機械의 Hardware部門으로부터 Software部門에 이르기까지 綜合的인 檢討를 하여야하는 姿勢가 必要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農村環境改善 및 聚落構造改善事業이 새마을事業의 水準으로든, 農工分野事業으로 보태지는 만큼, 農村開發에 關한 限 어떠한 種類의 開發이든 農村全體에서 보는 視角에서 研究하고 計劃하지 않으면 아니될 段階에 와 있다고 보며, 또 農工學이 農村近代化를 위하여 存立하는 學問이라고 할 때 農工學의 새로운 開拓과 眞正한 農村近代化도 앞에서 말한바와 같은 視角에서 研究하지 않고서는 事業의 成果를 크게 期待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農工學이 지는 使命은 農村近代化를 成就시키려는데 있고 農村近代化를 위한 計劃은 農村計劃分野를 擔當하는 사람에 依하여 主導되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強調하고 싶은 것은 첫째, 生産基盤施設이던, 生活環境施設이던 農村에 關係되는 開發인 限 農村全體에서 보는 視角에서 計劃調整되어야 겠고, 둘째, 이러한 計劃을 可能케 하기 위하여는 農業生産基盤事業과 農村의 環境改善 및 聚落構造改善事業을 모두 한 部處에서 統合計劃하는 機構(農村構造改善局등)의 設立이 있어야 되겠고, 셋째, 우리 農工人은 農村近代化의 旗手라는 矜持와 透徹한 使命感을 가지고, 農村의 環境改善 및 聚落構造改善分野에도 積極的인 關心을 기우려 좀더 研究하고 工夫하여야 하는 同時에 그야말로 農工學을 地域工學的 學問으로 發達시켜 農村開發과 都市開發이 서로 均衡을 이룰 수 있는 方向으로 全力을 다하여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오늘날 農村計劃分科委員會가 지니는 使命과 責務는 重大한 것이고, 이 農村計劃分科委員會의 設置로해서 農工學의 學術分野 및 技術分野에 一大轉機를 마련하여, 名實共히 農村近代化의 先鋒이 되는 學會로 育成發展되기를 念願하는 바이다.